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1월 5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당자	하광택 ☎440-3791 김동조 ☎440-37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설 연휴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
- 21일부터 24일까지, 민자터널 2곳 통행료 무료 -
- 시민 행복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동참 -

오는 설 명절 동안 원적산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돼 교통흐름은 빨라지고,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 4일동 관내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오전 0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 밤 12시 사이에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 이다.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 으로 시행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설 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

되는 만큼, 인천시도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설 연휴기간 동안 2개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약 12만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터널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통행료 면제에 대한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성묘, 친지 방문 등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국가정책과 연계해 인천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붙임> 민자터널 현황사진

붙임

민자터널 현황사진

< 원적산터널 >



< 만월산터널 >

